

4) 경외감

“여호와와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시25:14)

경외감은 친밀감과 동전의 양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누가 감히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은하계는 태양과 같은 별이 약 1천억 개 모여 만들어진 별들의 집단입니다. 그 술한 은하들이 1천억 개가 모여 전체 우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천문학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빛의 속도로 150억년을 달려야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우주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작은 두뇌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광대한 우주도 하나님 앞에는 사소한 존재일 뿐입니다. (시97:5-6, 9) 예배를 드릴 때야말로 이런 경외감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틈틈이 모든 생각을 멈추고 그분의 위대함을 묵상해 보십시오. 특히 일주일의 하루, 주일에는 모든 시간을 그 분 앞에 내맡겨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경배하고 높임으로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참을 수 없는 예배의 가벼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경외감과 존경이 예배의 중심 요소로 회복되지 않으면 올바른 예배했다고 할 수 없다.” -로버트 베일리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가치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필요’와 ‘궁허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의 무한 중심이 ‘하나님’에서 ‘나’로 변질되었습니다. 나의 체면과 만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열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자기애’라는 우상숭배입니다.

※존경과 두려움이라는 복합 감정, 경외

경외의 사전적 의미는 글자 그대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잠1:7)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fear)이란 공포가 아니라, 공경과 놀라움이 배어 있는 경외(awe)를 뜻합니다. 영어 표현도 ‘fear reverence’라고 하는데 이는 ‘두려워함으로 존경하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 바로 그것이 경외감입니다.

※경외감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외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잭 헤이포드 목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에서 느끼는 경외감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능력에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의 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속 사건이 훨씬 더 경이롭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과도한 사랑으로 자신을 주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할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경외의 태도는, 예배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정면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태도이자 습관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보혈의 신비는 묵상할수록 더 큰 경외감을 우리에게 심어 줍니다. 지나치게 평범해진 예배의 깊이를 경외감으로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①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주요 소식

1) 8월은 재충전의 달

8월 한달은 목회 안식월로 보냅니다. 주일예배를 제외한 모든 집회와 양육 사역을 휴식하며 재충전의 기간으로 보내며 올해 전반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2) 교육부 (유/초등부) 예배 안내

8월 11일(주일)부터 유초등부 예배가 오전 11:30에 아래층 유초등부실에서 드려집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소리에 “장혁재 목사” 찬양 예배 8월 18일(주일) 오전 11:30

■ 감사

1) 예배당 조명 교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우 동정

1) 미국 방문 최준철 장로

■ 교역자 동정

1) 휴가 하선미 전도사 (8월 13일 - 8월 20일)

■ 8월 교회 주요 행사 안내

1) 소리에 “장혁재 목사” 찬양 예배 8월 18일(주일) 오전 11:30

예배... 찬양... 예배자
(글: 박철순 간사 / 워십빌더스)

예배는 관람(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찬양은 감상용 음악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배 모임에 참석했다고 저절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누가 나를 대신해서 드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 가운데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 원로목사 및 파송선교사 홍성득 (Sung D. Hong) 목사
- 담임 목사 권태욱 (Jonathan Kwon) 목사
- 부교역자 윤은수 목사 (중고등부/청년부), 하선미 전도사(유치부/유초등부)
이영미 전도사 (영아부/유아부)
- 시무 장로 김항덕, 우종근, 조석희, 박종덕 • 협동 장로 임선중
- 반 주 김민경

코람데오
Coram Deo
LIVING BEFORE THE FACE OF GOD



서리한인교회
SURREY PRESBYTERIAN CHURCH

15964 88 Ave. Surrey. B.C. V4N 1H5 • TEL. 778-222-2582

주일 예배

※는 일어섭니다. 예배 인도: 윤은수 목사

※ 참회와 신앙고백 Call to Worship 다같이

※ 경배 찬양 Praise & Worship 찬양팀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대표기도 Prayer 이지수 권사

환영 및 광고 Announcement 인도자

※ 헌금봉헌 Offering 헌금위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에베소서 Ephesians 6:19-20 인도자

설교 Sermon 예수님의 신비 The Mystery of Jesus Christ 홍성득 원로목사

결단찬양/기도 Prayer Together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도자

※ 축도 Benediction 홍성득 원로목사

※ 축복 및 파송 찬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찬양팀



오늘의 말씀 요약

- 본 문: 에베소서 Ephesians 6:19-20
- 제 목: 예수님의 신비 (The Mystery of Jesus Christ)

Blank lines for the sermon summary.



- 씨리한인교회 합심기도
- 1. 매일 10명의 교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 기도 합시다.
 - 2. 기도의 300 용사를 세워 주옵소서.
 - 3. 씨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축복의 통로와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지난 주 헌금

예배 위원

주 일	8월 11일	8월 18일	8월 25일	9월 1일
대표기도	이지수	우종근	최미영	온세대 예 배
안내위원	임경자 고영미 한선에 최명원			
헌금위원	고광임			
점심봉헌	오석철	김연수	김향덕	고영미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주일 예배 11:30 am 본관 1층 유.초등부 11:30 am 본관 지하 중고등부 & 청년부 11:30 am 본관 지하
새벽 기도회	화요일 - 금요일 6:00 am 본관 1층
금요 성령집회	금요일 7:30 pm - 9:00 pm 본관 1층
제3기 제자훈련반	화요일 9:30 am - 11:00 am 목양실